

News

인터넷은행, 10월 예적금 희비 엇갈려

스포츠서울

5대 시중은행 및 케이뱅크의 수신이 늘어난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만 수신 감소

인터넷 은행들의 여신 잔액은 10개월째 증가세 유지

대기업도 高금리 부담… 증설 대신 외주 확대, 공장 신설 재검토

동아일보

한은, 24일 기준금리 상승폭 결정… '빅스텝' 맨 이자 부담 8조8000억 ↑

대기업들 속속 투자 잠정 보류… 자금 압박 中企는 "인원 감축 고민"

연말 대출금리 10% 예고… 매달 같아야할 이자 두배 뛴다

파이낸셜뉴스

美연준 4연속 자이언트스텝 예상, 한은 기준금리 4%까지 갈수 있어

시장금리 상단 10%까지 오를 전망, '영끌족' 채무상환 능력 악화 우려

KB금융, 웨이브릿지와 디지털자산 사업 확대 협약

뉴스1

핀테크 기업 웨이브릿지와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룹의 주요 디지털자산 사업분야별 경쟁력 제고를 추진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에 시장혼란 커지나

뉴스1

13년만 콜옵션 미행사 발생…보험사 등 국내 금융사 대외신인도 저하

자본시장 경색 '살얼음판' 속 위기감 증폭…금융당국 선제적 진화

'장기계약자도 못 버린다'…생보업계, 해지환급 건수 ↓·금액 ↑

시사저널e

생보업계, 8월말 해지환급 건수 줄었지만 금액 늘어

"건당 해지환급금 많은 장기 계약자 종도 해지 늘어난 영향"

대형주로 쏠린 외국인…거래대금 나흘로 반등

한국경제

외국인, 삼성전자·LG엔솔 등 대형주만 집중 매수한 영향

전체 시장 거래액은 연저점

'레고랜드 사태' 동지가 적으로… 강원도, BNK에 손배소 검토

국민일보

道 "만기 연장 합의했는데 디풀트"

BNK "중도개발公 회생 신청 때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